

2021. 06. 08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국회토론회

2021. 06. 08. 화요일 14:00-16:00

 YouTube 채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머리말

# 6/8(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하는 온라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8(화) 오후2시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4일, 두 기관은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1,45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71.6%가 코로나 19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뒤이어 신체발달 지연, 정서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도 빈도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 데이터로서 확인되었고, 아이들이 겪는 발달 격차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발달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영유아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모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 06. 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 인사말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모색한다」 토론회  
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토론회를 같이 준비해주신 정지현,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  
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원장 및 교사의 74.9%는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  
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76.0%는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  
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 고 응답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한 이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언어에 대  
한 노출과 발달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창 뛰어놀 나이인 아이들의 바깥놀이 위  
축은 정상적인 신체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의 대유행이 아동의 교육이나 건강에 큰 영  
향을 미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동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바, 발달 격차가 또 다른 불평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많은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풍성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경기도 용인시병)

## ■ 축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정춘숙 의원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 홍민정 공동 대표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춘숙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많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영유아의 언어, 신체, 사회성 정서 발달에 지연이 나타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과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그리고 여러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발달 저해에 대한 여러 해법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유아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 ■ 축하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  
입니다.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모색한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시대 우리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을 논의하고 되짚어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민주당 정춘숙 의원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영유아와 양육자들은 물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가정양육을 오래 하다 보니 양육자의 스트레스는 커지고, 아이들 간의 발달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유아들의 발달 상황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10명 중 7명가량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양육자들 역시 바깥 놀이 위축으로 아이들의 신체 발달 기회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된 실내 생활로 인해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육자들은 정부나 자자체에 영유아들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와 돌봄 공백이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에 적극 귀 기울이고, 영유아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모색한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김성주

## ■ 축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춘숙 의원님과 토론을 진행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기반임과 동시에,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에 이바지하는 사회 필수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집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와 우선 예방접종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영유아의 코로나 우울 방지를 위해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보육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는 한편, 가정양육 지원도 지속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접촉 최소화과 마스크 착용은 언어 습득 등 영유아 발달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는 오늘

토론회의 개최는 굉장히 시의적절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영유아 발달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언은 향후 보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정춘숙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8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 ■ 목 차

### 발 제

- 주제발제: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 1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 논 찬

- 제 1 논찬: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21
- 제 2 논찬: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 ..... 23
- 제 3 논찬: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 원장) ..... 27
- 제 4 논찬: 김용범 (경기도 보육정책과 과장) ..... 31



■ 주제발제

#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I. 들어가며

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III. 정책제언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년 내내 가정양육을 하다보니 양육자의 스트레스는 커져가고, 아이들 간 발달 격차도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성남시 6세 양육자)

“원격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유치원에서 아무것도 안해주는 것만 같고, 원마다 다 다르게 대처해서 불안해요.” (성북구 5세 양육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온라인 사교육이 답은 아닌 것 같고.. 아이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정말 어려운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동작구 유치원 교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영유아 양육자들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 조금만 건디어 내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이 정상화되고 우리 아이들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어느 것 하나 선명해지지 않은 채 2021년을 시작했다.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지만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위협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영유아 양육자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선생님, 유아교육·보육계 현장 종사자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자 2/18,25 두 차례에 걸쳐 <2021 와글와글 작당회>를 개최하였다. 2회 연속 경청회를 통해 양육자 및 선생님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교육/돌봄/발달’ 등 가장 크게 당면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유보육 현장에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가정 및 원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2021년에 기대하는 유아교육현장의 변화는 무엇인지 확인하였다.<sup>1)</sup> 특히 2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원장님들이 원아들의 언어발달, 신체발달, 사회성 정서 발달 지연, 미디어 노출 증가, 장애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발달 격차 심각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한 점에 주목하였다.<sup>2)</sup>

이에 그 실태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

1) 1차 학부모 간담회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88>

2) 2차 현장전문가 간담회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17>



5월 24일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1,45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sup>3)4)</sup>

이에 그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 데이터로서 확인하고,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영유아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프레시안** 2020.07.09. 네이버뉴스

**코로나 시대, 어린이들은 더 두렵다**

비대면을 강조하지만 영유아를 돌보는데 비대면은 가능하지 않으며, 신체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상시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며 신체적 접...



**조선일보** A29면 1단 2020.08.20. 네이버뉴스

**유치원 못 가고, 또래 친구 만나지도 못하는 요즘... 엄마-아빠가 ...**

심각한 발달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제한되고 유치원, 학원 참여도 감소하면서... 이러한 채널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수단은 다름 아닌 영유...



**한겨레** B4면 1단 2020.09.25. 네이버뉴스

**아이들 '마음 방역'하려면 관심 공유 넓혀야**

그것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은 인식 발달과 관계 발달이다. 특히 영유아기 때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대처법과 사회 지원책도 제시한다. 코로나로 인해 아...



**세계일보** 2020.10.06. 네이버뉴스

**"아이들 미소가 줄었다" 日 보육현장 목소리... 왜?**

영유아들이 무표정한 모습에 근심이 깊다. 수십 년간 시설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대 한 그는 올해 초 코로나19... 소화의과대 시부이 히로코 원장은 "유아의 발달 과정...



**부산MBC** 2021.02.01.

**"입이 안보여요"..영유아 언어교육도 코로나 영향**

영유아 보육시설마다 이렇게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교사들이 하루종일 쓰고있는 "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코로나19시대에는 동화책이나 가족여행 사진으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대화를 해보는...



**베이비뉴스** 2021.02.25.

**어린이집 원장이 증언한 '코로나' 1년..."아동간 격차 벌어졌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영유아발달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큰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바쁜 어댑터"라고. 임 대표의 질문에 가장 먼저 언급된 문제는 아...



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9527&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9527&plink=ORI&cooper=NAVER)

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2739&ref=A>

## 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조사 기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조사 대상	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709명, 학부모 742명, 총 1,451명
조사 기간	2021.04.27 ~ 05.02 (6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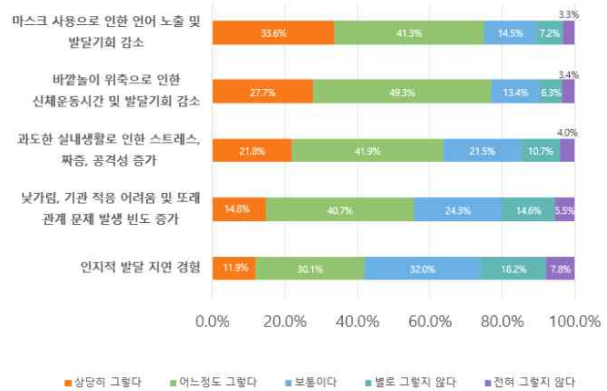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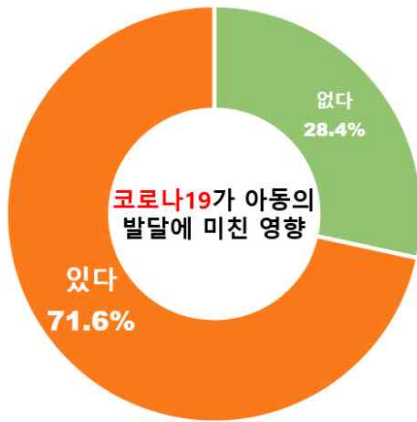
### 1)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

서울·경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게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감염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기관의 아동들에게 이전에 없던 발달의 변화가 발생’ 하였는지 물었더니, 원장 및 교사의 71.6%,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 고 응답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원장 및 교사의 74.9%(상당히 그렇다 33.6%, 그렇다 41.3%)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 했다고 77.0%(상당히 그렇다 27.7%, 그렇다 49.3%)가 응답했고,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 했다고 63.7%(상당히 그렇다 21.8%, 그렇다 41.9%)가 응답했으며, ‘낮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 했다고 55.5%(상당히 그렇다 14.8%, 그렇다 40.7%)가 응답했다.

- (발달지연 문제) 사회성과 아이들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퇴보되어 보입니다.
  - 나이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이 인지나 신체 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고 전체적으로도 나이에 해당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 (언어발달 문제) 마스크를 착용하여 영아들의 경우 언어발달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표정이 보이지 않아 언어발달이나 애착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정서적 문제) 전체적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
- 원장 및 교사 주관식 응답

##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 (원장 및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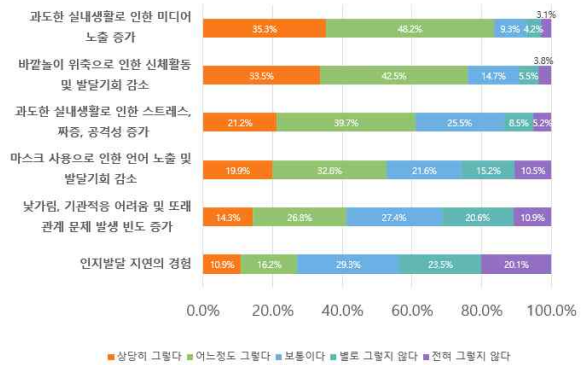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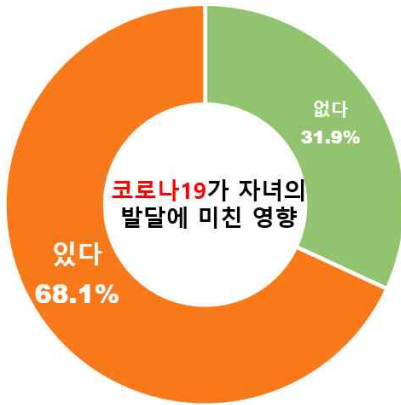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춘수의원실(2021.04)  
서울경기국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학부모들이 느끼는 아동의 발달 지연에 대한 위기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 고 응답했고,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을 때 학부모의 76.0%(상당히 그렇다 33.5%, 그렇다 42.5%)가 ‘바깥 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60.9%(상당히 그렇다 21.2%, 그렇다 39.7%)가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 했다고 응답했고,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 했다고 52.7%(상당히 그렇다 19.9%, 그렇다 32.8%)가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한해동안 가정보육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 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83.5%(상당히 그렇다 35.3%, 그렇다 48.2%)나 되어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속적으로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고 활동량이 거의 없어 식욕부진, 면역력 및 기초체력 저하, 온라인 수업 유튜브 링크로 인해 너무 어린 나이에 과도한 미디어 노출 심각. 쌍방향 수업이 아닌 일방적 주입식 수업이 되어버림. 사회성이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 해나가지 못함.
- 또래보다 포현하는 것이 서툴러 놀이 심리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단체 활동이나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음
- 아이의 인지발달이 심각해져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 학부모 주관식 응답

## 코로나19가 자녀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 (학부모)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준승의원실(202104)  
서울경기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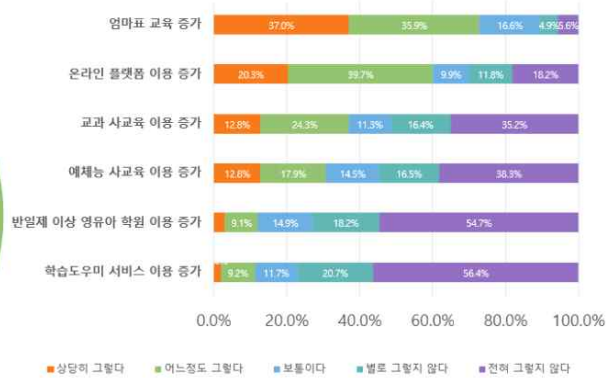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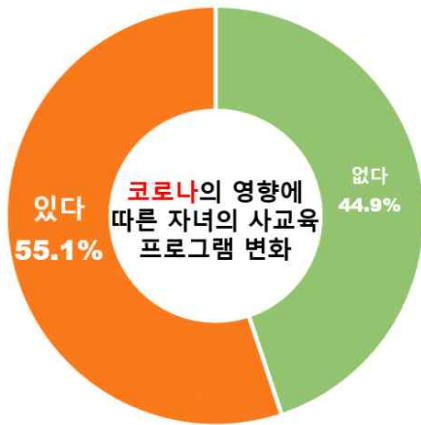
## 2) 코로나 19가 아동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미친 영향

학부모들에게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전후로 자녀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을 때 10명 중 절반이상인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변화는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등의 엄마표 사교육’ 이 늘었다고 72.9%(상당히 그렇다 37.0%, 그렇다 35.9%)가 응답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영어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 이 늘었다고 60.0%(상당히 그렇다 20.3%, 그렇다 39.7%)가 응답했다.

- 방문교사가 오던 학습지는 끊고 엄마표 학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외부수업이나 학원 이용에도 제한이 있어, 엄마의 양육 및 교육 부담이 커졌습니다.
- 문화센터 등 방문수업을 할 수 없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늘었다.
- 학원선택도 소수 정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을 선택함으로써 비용도 높아 부담이 됨. 유아가 있는 가정은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어 학원도 보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자가 모두 해야하는 상황임. 교육 공백이 심히 걱정됨.

- 학부모 주관식 응답

### 코로나19가 자녀 사교육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 (학부모)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춘숙의원실(2021.04)  
 서울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 3)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학부모는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67.4%, ‘돌봄 공백이 사교육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 46.4%,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를 막기 위한 가이드 및 대책 마련’ 40.3%로 각각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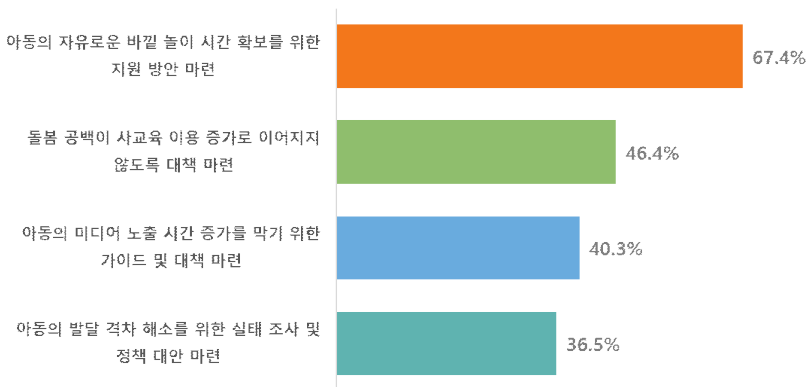
원장 및 교사는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건강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69.3%, ‘코로나 단계 격상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 지원 대책 마련’ 64.3%,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41.7%로 각각 응답하였다.

- (교사대아동비율) 저출산 시대에 국공립 개소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교사대아동비율을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보육의 질을 끌어올렸으면 함.
-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춰 각 아동에게 개별적인 지원의 기회를 더 늘리고, 경계성 아동 및 문제 아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스트레스 받아 심리적인 문제가 많은 아동이 더 많이 늘어났지만 교사대아동의 인원수가 줄지 않아 교사의 업무는 너무 과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 (공간확충) 자연 뜬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 마련

- (정확한 지침 마련) 명확한 매뉴얼, 지침을 자세히 전달.
- (학부모 협조 요청)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보육에 대한 인식 강화.
- 호흡기 증상시 가정 의무 교육
- (원에 대한 지원) 대체 인력 지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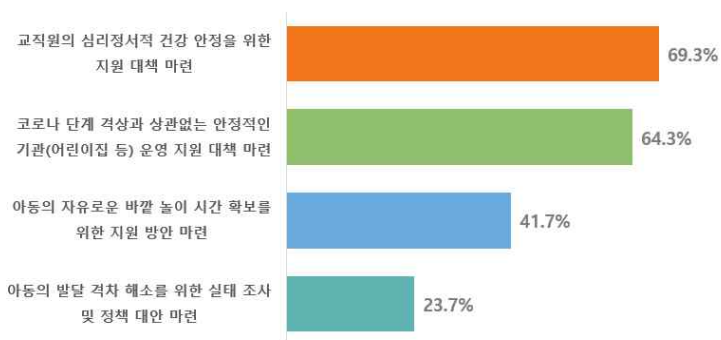
- 원장 및 교사 주관식 응답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 (학부모) \*중복응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춘숙의원실(2021.04)  
 서울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 (원장 및 교사) \*중복응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춘숙의원실(2021.04)  
 서울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 IV. 정책제언

이상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단지 아동의 감염병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발달 지연,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 발달 지연,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정서적 문제, 사회성 발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이 수치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는

### 1)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교육 현장 경험을 통해 ‘나이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이 인지나 신체 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고, 전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사회성과 아이들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퇴보’되었다, ‘교육 면에서 한 살을 뒤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생활연령이 낮아” 졌다고 주관식 응답을 통해 의견을 남겼다. 전체적인 생활연령 퇴보 문제 외 언어 발달 지연, 정서적·사회적 의사소통 발달 지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및 지자체가 유치원·어린이집과의 적극적 소통망 구축으로 조기에 발달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취약아동/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과 모니터링 및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2) 둘째, 정서적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의 ‘부모-아동’ 간 ‘교사-아동’ 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한다.

부모와 기관 내 교사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 7월,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sup>5)</sup>을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와 교사들은 코로

나 재난 사태 이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sup>6)</sup>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정 내 ‘부모’, 기관 내 ‘교사’ 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 이와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의 ‘아동’, 즉 ‘교육의 3주체’의 역동성 속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확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 3)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제1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에서 ‘영유아기 시기는 생애 초기 경험의 누적적·결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감염팬데믹으로 인한 육아환경의 변화가 아동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sup>7)</sup>며 코로나19 아동의 생애발달과 격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영향력이 202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아동들의 발달지연은 3년 이상이 누적되는 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 1학년에 진학했을 때의 발달 격차 및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양을 핵심성취기준 위주로 진행하거나, 난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며, 입학 후 개별 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 및 도움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 5)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 방역 시리즈, 영유아 심리 방역 매뉴얼
01. 감염병 재난이란?, 02. 감염병 재난은 왜 스트레스일까요?, 03.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알아보기, 04. 영유아 부모와 교사를 위한 감염병 재난 기본 대응 방법, 05. 영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이해하기, 06. 영유아에게 감염병 재난 설명하기, 07. 재난 후 영유아가족 적응 돕기, 08. 사례를 통해 배우는 영유아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09. 기타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10. 영유아와 함께 하는 마음 도닥이기 활동
- 6) ①부모: 코로나 전과 비교하여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변화 ‘증가하였다’ 부 51.0%, 모 59.6%.  
 ②아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원아동의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영아 41.2%, 유아 45.0%.  
 ③기관: ‘원장과 교사의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원장 86.7%, 교사 82.2%.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최윤경 외, 2020)
- 7) 최윤경, 코로나19 팬데믹과 육아분야 현황 및 주요 쟁점, 육아정책연구소, 2020.7



4) 넷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더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사회생태적 영역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가 제한되면서 ‘개인’ 차원에서는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적’ 차원에서는 놀이 공간에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아동의 놀권리가 더 많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 19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동의 발달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바깥놀이를 확대하여,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신체 발달 지연, 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의사소통 발달 지연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아동 발달 지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국 포브스지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교육 모델’로 선정한 ‘숲학교’8)

8) 미국 포브스지는 코로나 시대에 인기를 얻을 교육 모델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숲 학교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관심을 끌었던 숲 학교는, 아이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자연 속에서 놀이하고 탐험합니다. 그러다보니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죠.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게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델로 꼽혔습니다. (EBS뉴스G, 2020.06.13)

## 5)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시민들의 아동 놀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아파트 내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기관도 많고, 숲놀이터 체험을 가고자 해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실행으로 안전장비 구비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다양한 바깥놀이를 시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놀이터 개방에 미온적인 시민들의 인식개선 운동을 지속하며, 유아교육기관이 개정법 취지에 걸맞게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6)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원장 및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근본적인 보육의 질을 끌어올려’ 달라, ‘각 아동에게 개별적인 지원의 기회를 더 늘리고 경계성 아동 및 문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작년에 서울시가 시행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 결과에서도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개선과 관련해 총 52억원을 투입하여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사업<sup>9)</sup>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작년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연차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한 교사 공백 등의 이유로 필요한 대체교사 수급, 인건비 부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

9)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110곳, 보육교사를 1명씩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지원, 선정된 어린이집은 1개 반을 신설하고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해서 시범 운영. 어린이집 내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0세반’이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듦.

## Ⅵ. 나가며

이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대책을 제시해보았다. 2020년 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년 4개월 여의 시간은 영유아 아동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걸음마를 하고, 걷거나, 뛰기를 연습하는 시간이며, 용알이를 시작으로 소통으로서의 언어를 배워가는 시간으로서 성인의 몇배의 시간을 압축한 것 같은 중요도를 지닌 시간이다. 영유아 시기의 발달은 인생 중 가장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며, 일생의 첫 출발 시기로서 초기 경험이 일생을 통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아동의 적절한 성장을 위해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발달은 코로나방역에 뒷전으로 밀려 존중받지 못했다. 작년 10월, 일본에서 아이들의 미소가 사라졌다면 교사들에게 청각장애인용 마스크 쓰기가 권장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동들의 언어황금기를 그렇게 무심히 지나보내버렸다. 이제라도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및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 [붙임]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모음

### ■ 원장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

#### 문2-6. 아동의 발달 상황 변화 (원장 및 교사 기타 응답)

##### □ 전체적인 발달 지연

- 영유아 발달에 큰영향을 주고 있다
- 대면교육의 어려움으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 할뿐아니라 집합교육의 배제로 인해 2020년은 가정교육이 많았던바 기본생활습관등이 어려움을 가져왔고 일단 교육면에서는 한 살을 뒤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가정교육의 빈도가 많아지면서 생활습관등이 제대로 교육되어지지 않아 사회성과 아이들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퇴보되어 보입니다.
- 대부분 영유아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단체생활 경험이 없어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부분과 발달이 대체적으로 느리다.
- 생활연령이 낮아짐
- 나이보다 한살 어린거 같이 인지나 신체 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고 전체적으로도 나이에 해갈되는 전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 영아반에 새로운 놀잇감 제시했을때 놀잇감에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보이는 양상이 활발하거나 적극적으로 지 않고 교사의 직접적 상호작용과 안내가 있을 때 참여해봄.

##### □ 기본생활습관 형성 문제

- 기본생활습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기본생활습관도 많은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 결석이 길어져서 일상생활의 자조능력이 다른 해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 □ 언어발달 지연

- 마스크가 영아들의 언어와 인지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음.
- 장애통합반의 경우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발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기가 어려웠음
- 마스크 착용으로 영아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줌
- 마스크를 착용하여 영아들의 경우 언어발달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언어확장하는 시기에 소리로만 전달이 되다보니 아쉬움이 큰 것 같다
- 표정이 보이지 않아 언어발달이나 애착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마스크를 쓰고 하는 소통은 소통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의 관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확한 소통을 위해 반복질문을 함으로써 짜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 의사소통지연

- 아이들 표정 파악이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 □ 정서문제

- 아이들의 실외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서조절이 어려움.

- 전체적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

- 코로나19로 부모님 실직 등으로 가정 불화 잦음으로 영유아 정서불안 등의 심리적 변화 발생

- 바깥놀이 제한으로 인해 영유아 스트레스 지수 증감 및 교사의 다양한 보육활동 지원에 제약이 따름

#### □ 사회성 발달 문제

- 사회관계지연

- 사회성 어려움

#### □ 다양한 경험 제한

- 실외놀이가 없어지면서 신체발달에도, 자연을 체험하기 위한 기회제공이 줄어 아쉬움

-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어 영유아에게 제공되어지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 외부활동 제한으로 다양한 현장체험을 못 하는 부분이 아쉽다.

- 체험이나 견학, 특별활동, 행사 등이 취소되고 무한 연기되었음

#### □ 기타

- 부모참여의 어려움으로 신학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실 참관이나 참여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보육과정과 영유아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 게임과 미디어 노출의 증가

- 작년 신설로 인해 그 전 영유아 상태 파악이 어려움

### 문4. 지원 필요한 점 (원장 및 교사 기타 응답)

#### □ 교사대아동비율

-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 각 아동에게 개별적인 지원의 기회를 더 늘리고 경계성 아동 및 문제 아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교사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
- 스트레스 받아 심리적인 문제가 많은 아동이 더 많이 늘어났지만 교사 대 아동의 인원수가 줄지 않아 교사의 업무는 너무 과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대 아동의 인원수를 만4,5세 원아도 감소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
- 저출산 시대에 국공립 개소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보육의 질을 끌어올렸으면 함
- 아동대 교사 비율 등의 조정
- 교사지원율을 높여주거나 교사와 아동 비율을 낮춰주세요
- 솔직히 공간에 비해 교사대비 아동수가 많고 결석인원도 없기에 거리두기가 힘들
- 교직원 심리정서 교육같은거 말고 실질적으로 심리정서 건강 안정을 위한 휴가 증가 또는 교사대아동비율 감소

#### □ 공간 확충

- 자연 또는 실내에서 활동할수있는 공간과 지원마련

#### □ 정확한 지침 마련

- 지침을 자세히 전달
- 명확한 매뉴얼. 상황에 따라
- 코로나가 심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확실한 기준과 시행방법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침을 내려놓고 학부모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이나 해결을 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다. 아이들의 등원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어서 서로간에 오해를 사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 □ 학부모 협조 요청

-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긴급보육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
- 아동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의무 가정보육
- 감염자가 많아 심각한 상황일때 어린이집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늘 어린이집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교직원 건강관리뿐만(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 가정보육중인 원아의 가정도 검사권고 지속적이어야 관리가 될 것 같음
- 가정 내 방역 지침 안내 강화 ex)호흡기 증상 등원
- 학부모님과 아이들 역시 교사처럼 개인위생 동선에 유의하기 확보
- 정부지침에 따른 휴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협조 요청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모의 인식개선
- 각 가정의 여행자제

- 교사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지역이동이나 코로나 검사 등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함. 교사에게 제한을 두며 아동과 부모들은 캠핑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 것이 지속되는 이 상황이 조금 부조리하다고 생각함.
- 긴급보육이지만 출석율은 100프로임
- 제발 가정보육
- 부모들의 지침 준수 강화 및 함께 책임지는 행동 수칙 필요
- 학부모도 보육교사와 동일시 한 달에 한 번 검사 요청

#### □ 가정 지원

- 가정양육지원 / 코로나 격상 시 가정양육지원

#### □ 대체인력 강화

- 보조교사 지원
-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있는 아동이 등원 시 대체인력
- 교직원 식사 및 소독방역으로 인한 원마다 교직원 1명 상시 근무자 채용 지원 마련
- 실질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구하기 힘든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구인해야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책임을 원장에게 떠안기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원장이 안고 있는 부담감은 모든 영역에서 너무 광범위하고 크다

#### □ 교직원 관련 대책

- 교직원 지원이랍시고 쓸모없는 교육은 금지.. 차라리 돈으로 보상해주세요 휴가나
- 보육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 교직원의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함
- 교실에서만 있어서 폐쇄공포증이 있는 교사들이 많아요.
-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
- 민원발생하지 않게 해라 가 아니라 기준을 학부모의 민원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에 두고 보육교직원도 한 아이의 부모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명확히 있어야합니다.
- 매달하는 선제적검사가 퇴근후나 주말에 이루어지는것에 대한 보상 필요.차비 시간비용등등.
- 부모 모두 각종 늘어난 교육과 필수 교육의 증가와 서류 증가로 인한 피로

#### □ 원 경제적 지원 대책

- 재원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비지원
- 보육현원에 상관없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사업자대출도 해당안되고 힘듭니다!!!!



- 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이라 개인사업자라 볼수도 없고 개인신용대출

#### □ 코로나 대응

- 현실성있는 코로나 대응책 마련.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마스크 착용의 영아들의 어려움 등...
- 서류 확인 부담 없는 코로나 방역 컨설팅 점검
- 코로나 격상시 유치원과 동일 대응
- 코로나관련 방역점검이 아닌 지원

#### □ 예방접종 관련

- 빠른 예방 접종 실시 / 빠른 백신 수급이 관건 / 예방접종
- 보육교사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때 부작용이 적은 화이자로 접종해 주길 바란다

#### □ 기타

- 운영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교사들의 투명 마스크 제공 요청
- 체험활동이나 지역연계활동에 대한 지원

#### ■ 부모 대상 설문조사

##### 문3-7.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변화 (부모 기타 응답)

- 방문 교사가 오던 학습지는 끊고 엄마표 학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외부수업이나 학원 이용에도 제한이 있어 엄마의 양육 및 교육 부담이 커졌습니다
- 문화센터 등 방문 수업을 할 수 없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늘었다
- 학원 선택도 소수 정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을 선택함으로써 비용도 높아 부담이 됨, 유아가 있는 가정은 코로나감염이 우려되어 학원도 보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자가 모두 해야하는 상황임 교육 공백이 심히 걱정됨
- 다니던 학원을 정리했음
- 학습지 이용 중단
- 방문 학습지를 하다가 그만 둠
- 코로나로인해 교육기간에서 진행하던 영어, 체육 등 특별수업이 미진행됨에 따라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아짐

**문4-7. 아동의 발달 상황 변화 (부모 기타 응답)**

- 지속적인 가정내에서만 생활하고 활동량이 거의 없어 식욕부진, 면역력 및 기초체력 저하, 과도한 미디어 노출(온라인 수업 유튜브 링크로 인해 너무 어린나이에 노출 됨). 쌍방향 수업이 아닌 일방적 주입식 수업이 되어버림. 사회성이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 해나가지 못함
- 또래보다 표현하는것이 서툴러 놀이 심리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또래관계 형성이 도움이 되는 단체 활동이나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음
- 8세 아이의 인지발달이 심각해져서 지금 사교육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 긴급보육 이용했고, 코로나로 인해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바깥활동이 줄어들고 미디어 노출이 높아진것 같습니다.
-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영어, 체육 등 활동은 물론 체험학습도 없어짐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기회가 없어짐
- 아이들이 어려 아직은 티가 안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함
- 모든 문항 다 해당됩니다
- 가정내 구성원들과 교류가 늘고 애착관계 강화

**문5. 지원이 필요한 점 (부모 기타 응답)**

-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 관련 정신적 상담등이 필요함
- 장애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회성 발달 결여등을 치료 지원으로 만회바람
- 교육프로그램 형성으로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교육할수있는 프로그램 마련
- 돌봄 공백으로 회사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 아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인증되고 부작용이 적은 백신및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고 백신도 제대로 인증이되고 효과가 높은 화이자 안전성이 있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접중되길
- 마스크 벗는 일상생활!

## ■ 제1토론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유미숙(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2020년 전 세계의 교육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COVID-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교육의 장소와 방법이 변화되었습니다. 비대면 교육방법, 온라인 매체나 전자기기를 통한 교육방법, 부모들의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은 물론, 생활환경과 인간관계, 발달적 환경의 제약들이 발생되었고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대상을 염려하여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의 개최는 시의적절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사태의 발생 후 각 나라의 대처방식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영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환경과 방식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 1.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발달과정에 놓여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본인이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바로 본인이 마시게 하는 것은 신체발달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폐의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팬데믹 사태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규정한 영국의 기준을 우리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호흡기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영국초등학교에서도 등교할 때는 학교 교문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교문까지만 들어가고, 교문에 도착하면 마스크를 벗고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유아에게까지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강요하는 현상은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은 철저히 소독이 되어있어야 하고 교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2.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

유아들이 마스크 없이 놀이할 수 있는 자연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생태 학습장이나 키즈 카페를 지원하여 활동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층간소음의 다툼이 더 빈번해졌다고 부모들이 호소합니다. 낮 시간에 출근하던 어른들은 윗집의 낮 시간 층간소음을 인지하지 못했었으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서로 볼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서로 이해를 나누는 의사소통채널이 필요하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인식개선을 위한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부모의 재택근무로 인해 아이들의 집에서도 놀이장소와 행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국제회의를 줌으로 하고 있는 동안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 어른이 황급히 데려가는 장면들은 COVID-19팬데믹 사태에 가끔 보는 장면입니다.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때에 가정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봄지원 할 인력도 필요합니다. 어른이 집에서 일하느라 아이들의 놀이시간과 공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그들의 일이며 학습과정입니다.

4.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1년 동안 언어발달지연을 호소하는 영유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사 당 영유아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부담임제를 두는 경우와 같이 돌봄을 담당할 성인의 수를 대폭 늘여야 합니다. 출산 아동 수가 줄어들었다고 교사의 수를 줄이려는 발상은 교육을 후퇴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므로 염려됩니다.

5.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을 위한 튜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독일에서 이민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학습지연을 막기 위해서 유아원에서 3세에 언어평가를 하여 6세까지는 튜터를 지원하여 6세가 되었을 때는 언어능력이 독일 아동들의 평균능력과 동등하게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지원제도의 벤치마킹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6. 과잉학습이란 용어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습이란 개인의 발달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을 학습이라고 보면 특히 영유아들의 학습은 놀이를 통해 극대화 됩니다. 놀이를 통한 다양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올바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를 돌봄 기관이나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 합니다.

7. 사교육은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발상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맞는 사교육은 제공되어야 하며 프랑스처럼 일정 사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 제2토론

# 코로나 19를 넘어, 영유아 발달권이 보장된 세상으로 한걸음 더...

홍기목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우리는 2020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자 전국민이 노력하여 위험한 고비를 잘 넘겼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영유아들은 돌봄과 발달지원, 다양한 교육환경의 장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2021년 보육과 교육의 현장에서는 발달지연과 불균형한 발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와 양육 스트레스에 지친 부모,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를 보육과 교육의 현장에서는 묵묵히 담아내고 있다.

현재 2021년은 지난해의 공백을 메우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기로 시스템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보육과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휴원/ 긴급돌봄 등등의 형식은 정상적인 운영으로 회복되었지만,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인 공백과 교사의 심리적인 소진과 가중되는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영역		내용
영유아	발달지원	신체/ 운동발달지 원	<b>1. 지자체 공동 놀이시설 확보</b> - 지자체 놀이시설이나 공원, 공공시설은 전면 폐쇄가 아니라 영유아에게 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우선권 부여하기. - 영유아의 신체활동과 놀이권을 보장하고 활동시간과 공간에 대한 점유권 부여하기. - 보조인력 배치로 안전확보

			<b>2. 정기적인 운동프로그램 실시</b> - 영유아 운동프로그램 각 영유아교육과 보육기관에 인력과 재정 지원
		인지/언어	<b>1. 인지개발을 위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b> -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노출 보다 직접 경험 시간 제공과 기회 마련하기  <b>2. 유효인력은 통한 놀이시스템 도입</b>
		정서	1. 오랜시간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정서형성과 결핍감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치료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시스템 마련하기 2. 현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위클래스를 영유아교육기관에 도입하기
	부모 교육지원	코칭 시스템 개발	1.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스템개발과 부모 양육지원과 교육
		부모교육	<b>1. 단회성 부모교육/ 단기 부모교육</b> (현행 평가 인증제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지침을 단기프로그램으로 개정하기) <b>2. 부적응영유아를 위한 개별 부모코칭프로그램</b> (전문가와 연계를 통해 부모와 교사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도입)
	교사/ 기관장	교사지원	교사교육
교사힐링프 로그램			1. 교사의 개인적인 성장과 조직생활에 적응을 돕는 교사 정신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실시(집단교육) 2. 교사의 근무환경에서 경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개별상담지원

영유아를 위한 발달지원 시스템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보육교사에게 전담되었던 부분을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1. 신체 / 운동발달 영역은 코로나 19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다. 영유아들은 공간적인 제약으로 발달과정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격성이나 활동성이 제약되었다. 영유아교육에 있어서 신체나 운동발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장소나 인력의 문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 준다면 작년 한해동안 결핍된 욕구를 해소하면서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의 과중된 업무를 줄여주면서도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 인력을 통해 교육내용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언어, 인지는 기존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 형태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영유아를 돌보는 시간이 불안정해지고 어린이집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영유아시기에 환경에서 결핍으로 발달지연 문제가 발생하거나 언어발달에서 조음, 어휘부족, 언어이해 부족의 현상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격행동으로 연결되고 사회성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 19이후에 발달지연이나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전직 보육교사, 인지치료사 등등)을 지원하여 개별 영유아를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3. 정서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영유아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도 정서적인 빈곤이 있다면 심리적인 허기감으로 인해 우울감과 공허함이 생긴다. 이것을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오랫동안 분리된 상태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 교사와 접촉이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정서적인 교류가 매우 부족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정서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놀이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놀이치료, 치료놀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초중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클래스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기관에도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모는 양육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은 기관 평가 항목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데,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을 단기부모교육프로그램(최소 4회기),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유아의 경우에는 개별 코칭 부모교육 시스템을 도입이 필요하다.

4. 코로나19 과정에서 최전선에서 방역과 사회시스템이 한 부분을 지킨 한 부분은 영유아 교사이다. 부모가 직장을 간 사이에 긴급돌봄을 통해 교사는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년을 보냈다. 교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과 동시에 정기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사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며 온 국민에게 재난이었다. 국가적인

재난이면서 개인에게는 트라우마의 기억으로 남을 정도의 사건이다. 이제는 백신의 도입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고 회복을 위해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와 마음을 모으고 있다. 위에 제시한 방법들이 모두 실시되지 않을지라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이번 기회에 종합선물세트로 보육과 교육의 현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의 내용에 반드시 교사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 현장을 지키고 움직이는 주체는 교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은 받은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채워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란다.



## ■ 제3토론

#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에 대한 토론

정수경 (양재2동어린이집 원장)

중국 우한시에서 2019년 연말부터 우한 폐렴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국내에 20년 2월경 어린이집의 휴원령이 내려지면서 어린이집의 행정과 행사는 비대면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화되어 영아부터 모든 연령의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린이집 현장의 하루 일과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 지연의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의 법정 보육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입니다. 아동마다 보육 시간은 다르지만 최대 12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동들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간식시간, 점심시간, 낮잠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습니다. 신학기에는 새로운 선생님과 새친구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마스크를 벗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이 낯섭니다.

식사시간에는 가림막을 하거나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양치도 함께 하지 못하여 미처 양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도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맞아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은 재택근무 체제로, 학교는 온라인 학습으로, 각종 모임은 비대면 진행으로, 단체집합을 최소화되고 있을때에도 유일하게 단체생활을 했던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들은 발달의 최적기인 시기로, 언어발달뿐 아니라 사회, 정서, 인지 발달이 각 월령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므로 상호 작용이 제한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발달적 저해, 지연의 문제가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이미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는 선생님과 아동들은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져 표정을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과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고 표정으로만 느낄 수 있는 상대방의 감정 또한 알 수 없어 공감 능력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서·인성 발달의 지연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가 영유아의 뇌발달 자극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표정의 특징을 통해 뇌세포 회로의 연결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의 휴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긴급보육을 이용해야 하는 가정의 영유아와 가정보육이 가능한 영유아 사이에 언어의 발달적 격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일 연령의 영아들 중, 휴원으로 수개월 간 가정에서 가족과 일상 생활했던 영아와 달리 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긴급보육을 꾸준히 이용했던 영아의 언어발달 정도를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언어표현의 정도와 사용하는 단어의 갯수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긴급보육으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영아에 비해 가정에서 보육을 받았던 영아가 언어표현의 정도와 사용하는 단어의 갯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20년도에 양재2동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이용했던 만1세 여아 1명과 가정보육을 했던 여아 3명의 경우 위와 같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정부 지침에 따라서 휴원 상태인 어린이집에서는, 야외활동과 같은 현장 학습과 바깥놀이 및 산책 등이 제한되었고, 외부인 출입금지로 인해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신체운동 발달에 있어도 외부활동 감소로 인한 신체운동 발달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과 3월 서울시는 어린이집 원아 당 각각의 가족 대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권장하였습니다. 이렇듯 보육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와 예방접종, 그리고 원아 가족 대표의 선제 검사 등 예방적 방역이 “전제” 된다면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영유아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희망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영유아 교사들은 영유아 발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열악한 상황만 탓하지 말고 아동의 발달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육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들은 마스크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능동적으로 쓰고 벗고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벗으라고 할 때까지 쓰고 있으므로 교사들은 수시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들의 호흡과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바깥 놀이 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영유아들이 마스크를 벗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선제 검사를 마친 교사는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마스크를 내리고 입 모양을 보여주는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들이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에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면, 그간 아동의 안전 및 인지 발달에 가장 큰 관건이고 문제이기도 했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평시에 비해 교사와 아동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이 최소한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정책적 재고가 더욱 진지하게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발달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놀고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지속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 제4토론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에 대한 토론

김용범 (경기도 보육정책과 과장)



## ■ 종합토론





